

# 대학평의원회

1. 회의제목 : 대학평의원회(2026.05.21.)
2. 회의일시 : 2026/05/22 (금) 15:00 ~ 16:00
3. 회의장소 : 본관 3층 회의실

## 4. 참석인원

구분	인원	성명
참석인원	8명	김동수, 박지현, 김성진, 김수경, 김진태, 최덕제, 김덕수, 이지수
불참인원	6명	김보나, 조현수, 백주련, 김태현, 이강민, 이현우

## 5. 회의안건

평택대학교 학칙 개정안

6. 내용첨부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_20260522.pdf 별첨

## 7. 의 견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26.05.22

위	원	김	동	수	2026/06/01	확인
위	원	박	지	현	2026/06/01	확인
위	원	김	성	진	2026/06/01	확인
위	원	김	수	경	2026/06/02	확인
위	원	김	진	태	2026/06/02	확인
위	원	최	덕	제	2026/06/01	확인
위	원	김	덕	수	2026/06/01	확인
위	원	이	지	수	2026/06/01	확인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6. 05. 18.(월)
위원정수 : 13명	재적위원 : 13명

1. 회의일시 : 2026. 05. 22.(금) 15:00
2. 회의장소 : 본관 3층 회의실(ZOOM 회의 병행)
3. 참석여부

구분	성명	비고
참석인원 (8명)	(의장) 김동수 (부의장) 김덕수 (교원) 김성진, 김수경, 박지현 (위촉) 최덕제, 김진태 (조교) 이지수	간사대행: 박주희
불참인원 (5명)	(교원) 조현수, 백주련 (직원) 이강민, 이현우 (학생) 김태현	

## 4. 안건

### 가. 평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5. 회의내용

박주희 간사대행(이하 "간사")이 대학평의원회 재적인원 13명 중 8명(ZOOM회의 참석 : 김동수, 김수경, 박지현)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 성원이 됨을 보고하고 김동수 의장(이하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다.

### 가. 평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김정원 교무처장(이하 "교무처장")이 배석하여 학칙 개정안의 개정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PTU교양은 당초 '심·협·창' 영역의 배분이수제와 기초학문 중심 교양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배분이수 원칙이 약화되고 과목 수·개설 강좌 부족으로 학생 이수에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10년간 운영 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함을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실제 학칙의 개정문을 조항별로 설명하고 더불어 폐지된 PTU교양 과목의 이수구분 변경에 대해 설명한다. 일부 과목은 대학교양필수로, 나머지 과목은 교양선택으로 변경되었음을 설명하고, 대학교양필수 중 교양선택으로 변경된 기초생활영어(원어강의)가 있음을 설명한다.

이지수 의원이 2026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학칙 개정이 뒤늦게 이루어지는 면이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또한 조교로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수강과 관련한 민원이 있고, 특히 1학년 학생들이 듣고자 하는 강좌가 부족한 상황이 있음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을 설명하다.

이에 교무처장이 학칙 개정일이 늦어진 부분에 대하여 교무처를 대표하여 사과하다. 교양 교육과정위원회 등의 일정이 늦어져 1월까지 지연되었고, 본인은 지난 3월 16일에 교무처장으로 발령받은 후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또한 교양 과목 수와 관련하여, 기존 PTU교양을 심·협·창 세 영역으로 배분하여 운영하였는데, 각 영역에서 수강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였고 이를 허물어 운영되었으며, 이후 과목 수 부족 등으로 인해 PTU교양을 폐지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과목 수 부족은 피어선칼리지 교수들의 은퇴와 미충원, 각 학과에서의 교양 개설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학생들에게는 필수로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PTU교양을 폐지하였음을 설명하다. 또한 나머지 교양선택과목이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최대한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다.

이지수 의원이 협업적진로디자인 과목의 경우, 진로 상담을 하는 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지, 그리고 P교가 부족한 채로 졸업하는 경우 향후 어떻게 대체가 가능할지에 대해 질의하다.

이에 교무처장이 이전 대학 당국으로부터 피어선칼리지가 요구받은 것이 필수를 줄여달라는 요구였고, 이에 피어선칼리지는 여러 차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해당 과목은 학생들의 과목 만족도가 높지 않아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답변하다. 또한 P교 삭제는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전 학번의 학생들에게는 계속 P교 이수구분이 적용되므로 영향이 없음을 설명하다.

박지현 의원이 본 변경과 관련하여 학생들이나 피어선칼리지 교수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는지 질의하며,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교육과정 변경 등은 대학 평가에서도 중요하게 판단되는 사안임을 설명하다. 또한 학칙 개정이 P교 폐지인 것만으로 인지하였으나, 제31조에 대한 제1전공 및 제2전공 관련 변경도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다.

이에 교무처장이 2025학년도 여름부터 2026년 1월까지 교양학부 교수님들이 교무처와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으로, 피어선칼리지 단독이 아닌 이전 대학기관평가 인증 결과 및 교무처 요청에 따라 절차에 맞게 개정 발의되었음을 설명하다. 또한 제2전공은 2014년도부터 2016학번까지 운영된 교육과정으로, 2017학년도부터는 트랙제도인 표준트랙, 심화트랙, 자기설계트랙 등이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하다. 즉 이전 2016년에 운영이 종료

된 사안이고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트랙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전 제도를 학칙에서 삭제하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김수경 의원이 교양교육과정의 변경은 학교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포함하여 절차를 잘 지켜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건과 같이 하위 규정을 먼저 개정한 후 학칙을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학교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교수와 학생에게 영향을 끼치는 교육과정의 변경 시에는 타당한 방식의 업무 수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또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교무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건드리는 문제는 학교 운영에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며, 단순히 사과로 무마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하다. 지금 1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학칙을 개정하고 심의한다는 것이 중대한 대학 운영의 문제로 판단되므로 대학평의회 심의에서 입장을 정리하여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다.

이에 교무처장이 김수경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규정 개정이 선행된 후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맞으나, 본인이 처장이기 이전에 개정되었어야 하는 규정이므로 이전의 교무처장을 대신하여 사과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당시에는 피어선칼리지 학장으로서 대학으로부터 교양과목에 대한 변경 요청을 받아 최선을 다해서 학교와 조율하고 변경한 것임을 설명하다. 또한 졸업이수학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나 교양 교육과정 편성, 학사 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학칙 개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는 것임을 설명하다.

의장이 규정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 제도가 먼저 시행된 것인지 질의하자, 교무처장이 PTU교양을 이번 학기부터 폐지하였음을 답변하다. 이에 의장이 향후 감사 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이에 교무처장이 학칙 개정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뒤늦게 발견된 부분임을 답변하다. 행정부서에서는 2026학년도 이전 학번의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PTU교양이 존재하며 계속 수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 바가 있음을 설명하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향후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이 사안은 이사회에서도 다룰 사안으로 대학평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향후 이사회에서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다.

김성진 의원이 현재 교무처장님은 부임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잘못을 인지하여 개선하는 과정이므로, 현재의 교무처장이 아닌 이전 교무처장이 책임을 질 사안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다.

이에 간사가 본 사안과 관련하여, 대학평의회 직전의 교무위원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총장께서 본 사안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감사실에 조사를 지시하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을 설명하다. 또한 법무적인 관점에서 현재 학칙 개정 사안은 교과목 이수구분에 대한 폐지를 다루는 것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은 학칙 하위에 있는 세칙이나 규정에서 다루고 있음을 설명하다. 또한 당연히 학칙이 먼저 개정되고 그 다음에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올바르나, 졸업학점 이수 제도 자체는 총장 승인으로 운영되는 사안임을 설명하며 이에 대해 중대한 지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을 설명하다.

이에 의장이 과목명 변경은 학칙 변경사항이 아닌지 질의하자, 교무처장이 아님을 답변하다.

김덕수 의원이 그렇다면 본 학칙을 개정하지 않고 세부 지침 개정만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교무처장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내규와 지침을 개정하여 현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학칙이 먼저 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함임을 설명하다.

이에 최덕제 의원이 이전 운영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과정으로 인식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의장이 학칙 개정에 대해 안건을 정리하여, 본 학칙 개정안 처리를 어떻게 할지 의원 간 의견을 질의하다.

김진태 의원이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학생들에게도 헛갈리지 않고 대학의 일관된 규정과 원칙을 안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김덕수 의원이 다른 의원들의 의견과 같이 학칙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며, 총장께서 경위 조사와 재발 방지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박지현 의원이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 현재 하위 규정 내에는 교무처장이 검토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다고 설명하다. 이에 하위 규정(세부지침)에서도 학교 정책이나 사정에 따라서 교무처장이 검토, 소급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 학칙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된다는 문구 등을 남기면 이런 문제가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제안하다.

이지수 의원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수강신청 이전에 학과 및 학생들에게 빠르게 공지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이전 학번들의 PTU교양 이수에 대해 잘 설명하도록 안내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다.

최덕제 의원이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원안대로 승인하되,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제도의 시행 이전에 학칙 개정을 통해 구성원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의장이 각 의원의 의견을 정리하여, 학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되, 첫째는 감사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둘째는 교무처장이 학칙에 앞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 셋째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대학평의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의견에 참석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6. 폐회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폐회하자는 의장의 건의와 전체 의원의 동의·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16시에 폐회하다.

2026년 05월 22일



< 2026.05.22. 대학평의원회, 본관 3층 회의실(ZOOM병행)>